

일제 강점기 관립 중등학교 특별교실에 관한 연구 -국가기록원 소장 학교건축 도면을 중심으로

이정우*

¹배재대학교 건축학부

A Study on the Specialized Classrooms of Governmental Secondary School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Focused on Architectural Drawings for Collected by National Archives of Korea

Jeong-Woo Lee¹

¹Division of Architecture, Pai Cha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 총독부 생산의 학교건축 도면 분석을 통해 일제 강점기 관립 중등학교 특별교실의 계획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당시 일본의 과학교육 진흥책의 영향으로 과학교과용 특별교실은 필수시설들 중의 하나로 계획되었으며 이화학교실과 박물관교실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 이들 교실에는 준비실, 기계실, 표본실 같은 부속실이 설치되며 이론 강의 및 실험시연을 위한 계단교실이 별도로 설치되기도 하였다. 3) 과학 교과 특별교실은 설비 및 안전상의 이유로 다른 시설들과 이격하여 계획하는 경향이 강했다. 4) 예술교과용 특별교실 중 도화실은 남녀학교 모두 설치 빈도가 높은 편이나 음악실의 경우 여학교에서는 특별한 건축 계획적 고려 하에 만들어진데 비해 남학교에서는 설치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가사교과용 특별교실은 여학교에서는 남학교의 과학교과 특별교실만큼 비중이 있는 시설로 계획되었다. 6) 기타 교과용 특별교실로 한국인에 대한 실업교육 위주의 차별적 교육정책을 상징했던 수공실이 설립년도가 빠른 한국인 학교들에서 계획되었으며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일부 일본인 학교에 지리역사교실이 계획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특성들은 관립 중등학교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교실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당시의 교육시설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학교 건축에 특별교실이 도입되었던 초기 양상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specialized classrooms for governmental secondary school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by analyzing architectural drawings collected by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science promotion of that time, specialized classrooms for science were considered as one of essential facilities. Typically exclusive specialized classrooms were assigned to two major science subjects : physics-chemistry and biology. 2) To science specialized classrooms, ancillary rooms for preparation, experiment equipment and specimen were attached and science lecture room with stepped floor was planned additionally only for the lecture on theories and the demonstration of experiment. 3) Specialized classrooms for science were zoned independently of other facilities because of the special equipments and safety. 4) Art rooms were common to both boys' and girls' schools but concerning music rooms, girls' schools had special concerns, whereas boys' schools did not. 5) Specialized classrooms for homemaking subject of girls' school were as much important as those for science subjects of boys' school. 6) Some early-established Korean boys' schools had handicraft rooms which were the symbol of vocational education-oriented, unequal policy on Koreans. Though not general cases, specialized classrooms for geography-history were planned for Japanese boys' school. Restricted to governmental secondary schools but considering the uncommon state of specialized classrooms of that time, these characteristics show conditions of early time when special classrooms were introduced into Korea

Key Words : Secondary School Architecture, Japanese Colonial Era, Specialized Classroom, National Archives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 Jeong-Woo Lee(PaiChai Univ.)

Tel: +82-42-520-5326 email: yvan1@pcu.ac.kr

Received December 12, 2013

Revised (1st January 6, 2014, 2nd January 10, 2014)

Accepted April 10, 2014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7년 이후 국가기록원은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에서 생산한 건축도면들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이 도면들은 시설 용도별로 분류되어 웹상에 공개되고 있으며 해제집 형태의 단행본으로도 출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일차 연구자료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역시 이 도면들 중 가장 먼저 공개가 이루어졌던 학교 건축 분야의 도면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일제시기 학교건축 도면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참고문헌 [4, 5, 6])이 이루어졌지만 공개된 도면의 방대함(학교로 분류된 도면은 총 4,797매임)에 비해 관련 연구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고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중등학교의 특별교실을 대상으로 그 계획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별교실은 기존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기도 했지만 일제강점기 동안 초등 교육기관에는 잘 설치되지 않았던 시설로 중등교육시설을 특징지을 수 있는 영역이므로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교들은 1911년부터 1924년까지 총독부 관리 하에 있던 관립 인문계 중등학교들이다. 총독부 관할의 관립 중등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기 직전해인 1924년을 기준으로 관립 인문계 중등학교의 총수는 25개였는데 이들 중 분석이 가능할 정도의 도면이 남아있는 학교는 총 20개로 그 유형과 수는 Table 1과 같다. 여기서 고등보통학교(또는 고보, Higher Common School), 여자 고등보통학교(또는 여고보, Girls' Higher Common School)는 한국인을 위한 학교이며 중학교

[Table 1] Case Schools

type of school	no. of case schools	no. of schools in 1924 ^{*)}
Higher Common School	12	14
Girls' Higher Common School	2	2
Middle School	6	9
total	20	25

*) "Statistics Annual Report of Chosun Government-general"

(Middle School)는 일본인을 위한 학교였다. 일본인 여학생을 위한 중등학교로 여자 고등학교(또는 여고녀)가 있었지만 관립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 학교의 도면들을 일차 분석 대상 자료로 하였으며 계획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사, 개별 학교사, 당시의 학교 건축 관련 기준, 학교시설 계획 각론 등의 이차자료를 함께 살펴보았다.

2. 과학교과 특별교실

2.1 과학교과 특별교실의 종류 및 관련실의 구성

일제 강점기 동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수차례 개정되었지만 연구 대상 학교들이 총독부 관할의 관립학교로 존재했던 1911년에서 1924년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과학교과 교과목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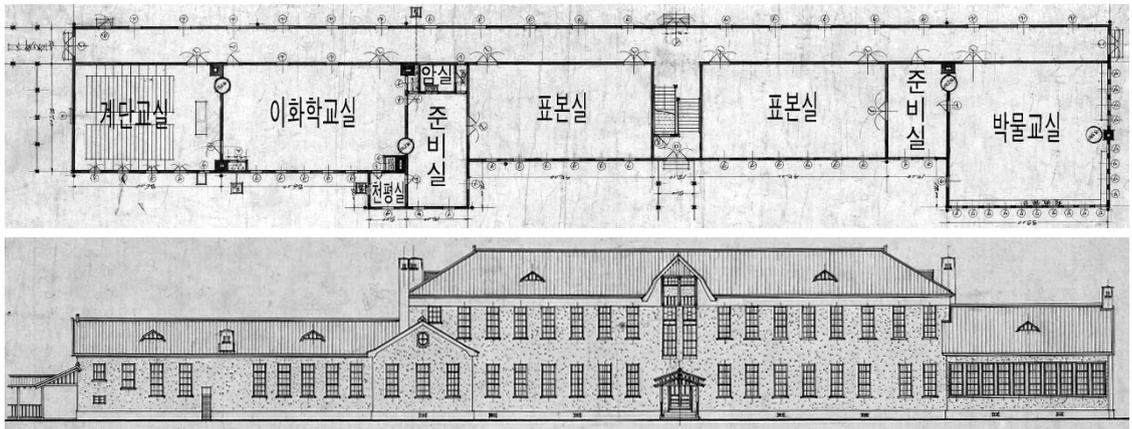
[Table 2] Science subject from 1911 to 1924

type of school	1911~1919	1920~1924
Higher Common School	S	PC B
Girls' Higher Common School	S	
Middle School	PC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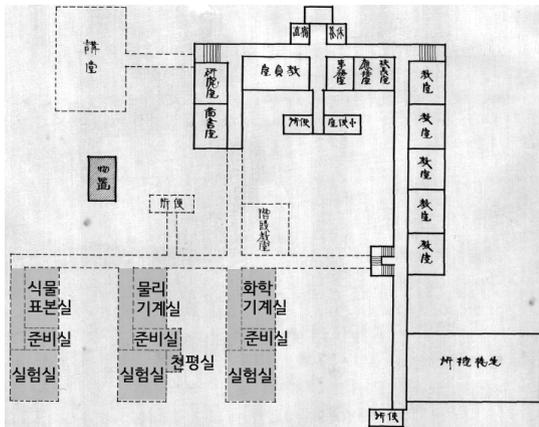
S : science / PC : physics-chemistry / B : biology

한국인을 위한 고등 보통학교의 경우 실업교육 위주의 차별적 교육정책으로 1919년까지 과학교과가 이과(理科, science) 한 과목으로 축소 운영되다 1920년부터 일본인 학교인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물리화학 (physics-chemistry)과 박물(博物, biology) 두 과목으로 분리되었다. 가사계열 교육이 강조된 여자 고등 보통학교의 경우 1911년 이후 이과 한 과목으로 계속 운영되었다.

분석대상 학교들의 관련 도면들을 분석해보면 과학교과 특별교실들은 학교별로 그 종류나 명칭에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Table 2의 1920년 이후 남학교 교육과정에서처럼 물리화학(이화학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함)과 박물 두 과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별교실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Fig. 1 참조) 예외적으로 물리와 화학을 다시 구분하여 총 세 개의 영역으로 과학교과 특별교실을 계획한 학교들이 있기는 하지만 두 개 학교로(광주고보와 경성제이 고보) 사례수가 많지 않다.(Fig. 2 참조)



[Fig. 1] annex for specialized classrooms : plan and elevation of Wonsan Middle School (from [8])



[Fig. 2] specialized classroom plan of Gwangju Higher Common School (from [8])



[Fig. 3] specialized classroom for physics-chemistry of Wonsan Middle School (from [3])

현재의 중등학교 과학교과 특별교실은 준비실만 부속되어 있는 단순한 구성이나 일제강점기 관립 중등학교의 과학교과 특별교실은 조금 더 세분화된 특성을 갖는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Fig. 1의 원산중학교이다. 이화학 과 박물 두 과목별로 각각의 교실과 이에 부속된 준비실, 표본실이 있고 별도로 계단교실이 계획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이화학교실, 박물교실 등은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행하는 곳으로(Fig. 3 참조) 이 때문에 관련 도면에 '이화학 실험실', '박물실험실', '생도실험실' 등으로 표기한 학교들도 많았다.

준비실은 명칭 그대로 교사가 학생들의 실험 준비를 하는 곳이며 이화학교실의 경우 천평실, 암실 등의 소규모 실들이 다시 부속되기도 하였다.(Fig. 1 참조) 표본실은 학교에 따라 기계실로 표기한 경우도 있으며 주로 이

화학교실에 부속된 실을 기계실로, 박물교실에 부속된 실은 표본실로 구분하였다. 이는 물리화학의 경우 실험 장비가 박물의 경우 각종 동식물 표본이 주요 보유품이었기 때문에 보인다. 표본실을 준비실과 별도로 구분한 것은 실험장비나 표본 모두 당시로서는 고가였기 때문에 단순히 수업시간에 교보재로 활용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 학교의 주요 자산으로 전시의 대상이기도 했기 때문에 생각된다. 계단교실은 타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목적실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석 대상 학교들 중 계단교실이 설치된 모든 사례들에서 과학교과 특별교실에 인접해 계획되어 있어 과학교과의 이론 강의 및 교사의 실험시연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Fig. 4 참조)

이상에서 살펴 본 과학교과 특별교실 구성상의 특성, 즉 해당교실, 준비실, 표본실(또는 기계실) 등의 3실 구성과 계단교실 별도 설치 등의 특성은 1920년대 이후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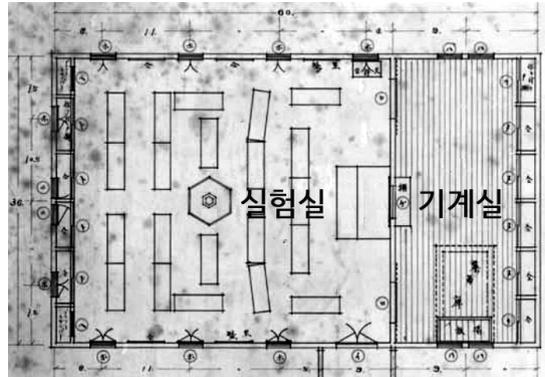


[Fig. 4] science lecture theatre of Daegu Higher Common School (from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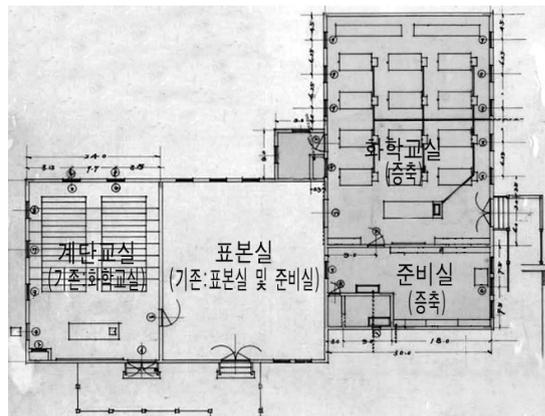
향으로 1910년대 혹은 그 이전에 설립되었던 학교들의 경우 이보다 단순한 구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11년에 설립된 평양고보의 이화학교실은 Fig. 5에서처럼 이화학실험실과 기계실의 2실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별도의 계단교실은 없었다. 이는 과학교과목이 이과 한 과목으로 축소되어 있었던 한국인 학교에 국한된 특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제 강점기 초기부터 물리화학과 박물 두 과목으로 운영되었던(Table 2 참조) 일본인 학교에도 유사한 계획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1913년 설립된 부산중학교는 초기에는 화학교실과 준비실 및 표본실의 2실로 구성된 화학교실을 별도로 건립했으며 별도의 계단교실은 계획되지 않았다. 이후 이를 증축하면서 기존의 화학교실을 계단교실로 변경하고 화학교실과 준비실을 증축하여 3실 구성과 계단교실이 인접해 있는 물리화학교과용 특별교실을 계획하였다.(Fig. 6 참조) 특히 배치도를 살펴보면 좁은 부지에 무리하게 물리화학교실을 증축하였던 것으로 보아 3실 구성과 계단교실 별도 설치 등은 이후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1920년대 이후 과학교과 특별교실의 구성이 세분화되고 강화된 것은 1910년대 후반 일본의 과학교육 진흥책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일본은 일차세계대전을 치르며 과학기술교육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이를 적극 장려하였다. 이에 당시 문부성에서 이과계 교실의 보조정책을 실시하면서 과학교과용 특별교실의 시설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이와 관련된 내용은 참고문헌 [1], p127~132참조) 이의 영향과 1919년 삼일 운동 이후의 한국인 학교 과학교과목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관련 시설의 확충도 중요시 되며 과학교과 특별교실의 구성이 세분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Fig. 5] physics-chemistry lab of Pyeongyang Higher Common School(from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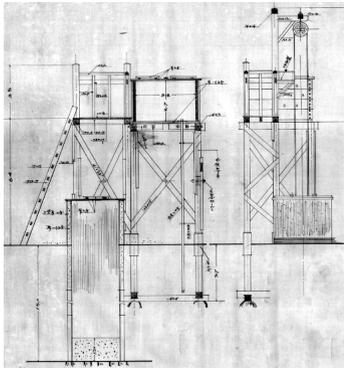


[Fig. 6] specialized classrooms plan of Busan Middle School (from [8])

2.2 과학교과 특별교실 각실의 계획특성

이화학 교실 내부의 구성을 볼 수 있는 학교 사례들을 살펴보면 실험대가 설치되며 급수설비가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Fig. 6 참조) 급수설비는 각 실험대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학교설립 연도가 앞섰던 평양고보의 경우 교단 근처에 육각형의 공용 개수대를 설치하여 실험실 급수설비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Fig. 5 참조) 급수설비는 도면상 '수도(水道)'라는 용어로 표기되어 있지만 당시는 상수도 보급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였으므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학교에서는 특별교실동에 인접하여 Fig. 7처럼 우물과 고가수조를 이용한 자가 급수설비를 계획하기도 했다.

이화학 교실의 바닥마감은 일반교실은 물론 다른 과학교과 관련 실들의 바닥이 마루바닥인 것과 달리 흙바닥 마감이 원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루바닥 마감인



[Fig. 7] well and elevated water tank of Hamheung Higher Common School (from [8])

평양여고보 1개 사례를 제외하면 이화학 교실의 바닥마감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들의 이화학교실은 모두 흙바닥 마감으로 처리되었다. 이는 각 실험대로 급수설비가 연결될 정도로 물의 사용이 많고 또 화학 약품이 바다

에 떨어지는 경우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물교실은 이화학교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험실로서의 특수한 조건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도전이 교실내로 한 개소밖에 인입되지 않아 각 실험대까지 급수장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화학교실 준비실에 부속되어 있는 암실, 천평실, 와사발생기실 같은 또 다른 부속실들이 없다는 점 등이 이런 추정을 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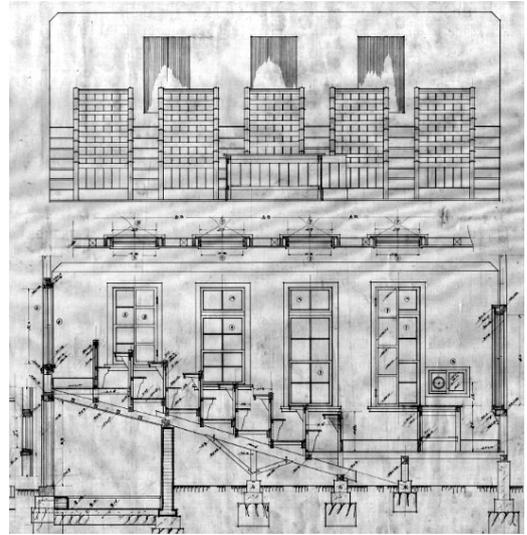
박물교실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Fig. 1의 박물교실에서 처럼 외주부에 현미경 관찰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공조명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자연광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교실 외주부에 집중 배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현미경 관찰대는 입면 구성에도 영향을 미쳐 Fig. 1의 입면도에서 처럼 현미경 관찰대가 설치된 부분은 다른 실들과 달리 연속창으로 처리되어 있다.

계단교실은 계단식 마루바닥에 고정식 좌석이 배치되어 있으며 창에는 환등장치를 시연할 때 필요한 빛 차단을 위해 커튼과 이중창 등의 차광설비가 되어 있다. 또 교단 근처의 외주벽에는 일광반사기(heliostat)를 설치하기 위한 작은 개구부가 뚫려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Fig. 8 참조)

2.3 과학교과 특별교실의 배치특성

과학교과 특별교실은 물을 사용하는 특성 때문에 모두 일층에 설치되었다. 1916년 공포된 ‘조선총독부 건축표준’에도 다음과 같은 언급이 나타난다.

‘이과 기타의 특별교실로 물을 사용하는 교실은 가능한하면 1층에 설치한다.(‘조선총독부 건축표준’45조)’



[Fig. 8] science lecture theatre of Daegu Higher Common School (from [8])

‘가능하면’이라고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술했던 것처럼 상수도가 아닌 우물과 고기수조 설비만으로 충분한 수압을 확보하기 어렵고 또 대부분이 목조교사였던 까닭에 누수로 인한 피해 등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들 때문에 과학교과 특별교실의 일층 배치는 당연한 계획특성이었다.

과학교과 특별교실은 당시로서는 첨단 시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특수 약품이나 가스 등을 사용하는 위험한 공간이기도 했다. 실제로 1928년 11월 광주교보에서는 이과준비실에서 실험약품이 폭발하여 교사가 안면에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 p136] 이 때문에 ‘조선총독부 건축표준’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이화학 실험실, 해부실 등과 같이 약품을 취급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경우 또는 수공, 금공 등 기타의 실과교실은 가능하면 다른 교실들과 분리하여 건설한다.’(‘조선총독부 건축표준’ 41조)

분석대상 학교들도 위의 계획지침을 따르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분석대상 학교들을 과학교과 특별교실의 배치 특성에 따라 구분하면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리한 것이 Table 3 이다. Table 3에서 유형1은 과학교과 특별교실만으로 한 건물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과학교과 전용동’ 형식이다. 유형2는 과학교과

특별교실과 비과학교과 특별교실을 한 건물에 배치해 ‘특별교실 전용동’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형3은 과학교과 특별교실, 일반교실을 함께 배치하는 ‘복합 교사동’ 형식이다.

분석대상 학교들 중 도면을 통해 특별교실의 배치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총 13개교 중 ‘과학교과 전용동’ 유형은 7개교로 많은 편이다. 또 유형2 ‘특별교실 전용동’형식도 학생들의 상주 시간이 많은 일반교실과 과학교과 특별교실을 분리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과학교과 특별교실이 일반교실과 분리된 유형은 10개교로 과학교과 특별교실을 분리하여 계획한다는 원칙을 따르는 학교들의 숫자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Table 3] type of specialized classroom annex for science

type 1	type 2	type 3	uncertain	total
SS	SS+SO	SS+CL	-	-
7	3	3	7	20

SS : specialized classroom for science
 SO : specialized classroom for other subject
 CL : classroom
 aud : auditorium / gym : gymnasium
 magym : martial arts gymnasium

type1 example (Yongsan Middle School)

type2 example (Wonsan Middle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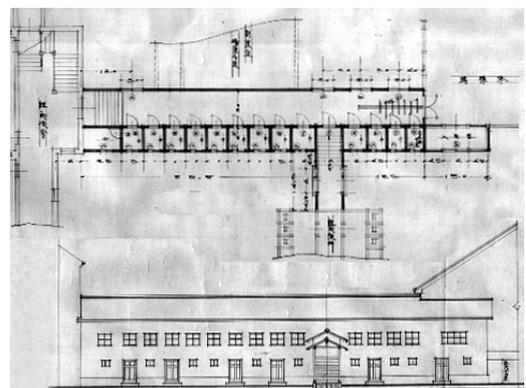
type3 example (Haeju Higher Common School)

3. 과학교과 외 특별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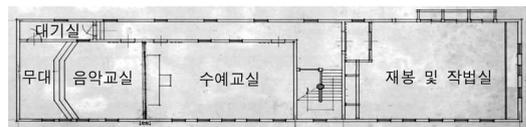
3.1 예술교과 특별교실

예술 교과로 분류할 수 있는 교과목은 현재의 음악과 미술에 해당하는 창가(여학교의 경우 당시 명칭도 음악이었음.)와 도화가 있었다. 이들 중 창가교실 관련 도면은 남학교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 관련 도면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모든 남학교에 창가교실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마스터 플랜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들에도 창가교실이 계획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남학교의 경우 창가교실 설치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과목 명칭에서 창가와 음악으로 차이가 있었듯이 사례대상인 두 여학교 모두 음악교실이 계획되었다. 학교 부지가 좁았던 경성여고보의 경우 두 건물사이에 연결 복도 형식의 소규모 개인연습실을 집중 배치하여 독특한 형식의 음악연습실을 계획했다.(Fig. 9 참조) 개인연습실은 없었지만 평양여고보 음악실에는 대기실과 교실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의 무대가 계획되었다. 음악실의 크기가 일반교실과 같아(20평) 무리한 공간배분으로 보이지만 인접한 수예교실과의 사이벽을 고정벽이 아닌 미서기문 형태로 처리하여 필요할 경우 확장이 가능한 가변형 평면을 의도한 계획임을 알 수 있다.(Fig. 10 참조)



[Fig. 9] annex for individual music practice of Kyeongsung Girls' Higher Common School (from [8])



[Fig. 10] specialized classrooms plan of Pyeongyang Girls' Higher Common School (from [8])

[Table 4] specialized classrooms for music and art

-	boys' school	girls' school	total
music	0/18	2/2	2/20
art	9/18	1/2	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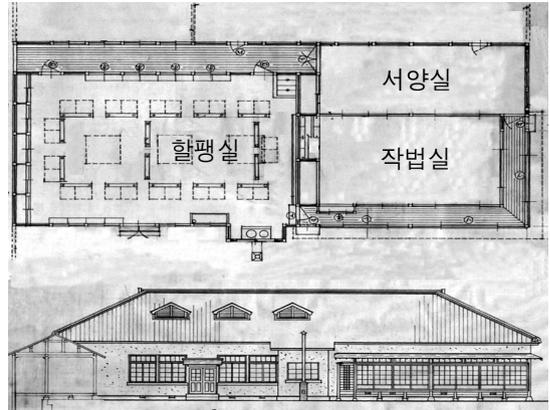
* a/b (a: no of schools, b: no of total schools)

창가교실과 달리 도화교실은 남학교에도 설치 빈도가 낮지 않아 분석대상 18개의 남학교 중 9개 학교에 도화실이 계획되었다. 여학교는 2개 학교 중 1개교에 계획되어 전체 20개 학교 중 10개 학교에 도화실이 계획되어 있다. (Table 4 참조) 과학교과용 특별교실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설치 빈도를 보이는 특별교실이 되며 그만큼 설치 우선순위가 높았던 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교실에 비해 규모가 크고(치수를 확인할 수 있는 8개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평균 면적 26.2평) 준비실 또는 표본실이 부속되어 있는 점 외에 구성상의 특이점은 없었다. 도화실의 위치 역시, 특정 위치에 한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도화실 계획이 확인된 전체 10개 학교 중 7개 교에서 도화실이 본관에 설치되어 있어 타교과용 특별교실들과 달리 본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도화실의 경우 과학교과용 특별교실처럼 특별한 설비나 안전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창가실처럼 소음이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2 가사교과 특별교실

여학교의 경우 가사교과 특별교실은 남학교의 과학교과 특별교실만큼 비중이 큰 시설이었다. 교과목 수만으로는 가사와 재봉·수예(1922년부터 재봉으로 통합) 등 두 과목이었지만 가사교과용 특별교실은 할팽실(割烹室), 작법실(作法室), 재봉실, 미싱실, 수예실(手藝室), 세탁실, 염색실 등으로 종류가 많았다. 이들 가사교과용 특별교실 중 현재의 조리실습실과 예절교육실에 해당하는 할팽실과 작법실은 다른 실들보다 계획상의 고려가 더 많이 필요했던 실이었다. 할팽실은 급배수 및 화로 등 설비상의 고려가 필요했으며 작법실은 일반 가정집 같은 환경의 조성이 필요했다.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경성여고보는 할팽실과 작법실을 일본식 주택풍의 별동으로 계획하기도 하였다.(Fig. 11 참조) 할팽실과 작법실에는 마루공간이 부속되어 있으며 다다미 마감의 작법실에 인접하여 마루바닥 마감의 서양실이 별도로 계획되어 서양식 예절교육을 위한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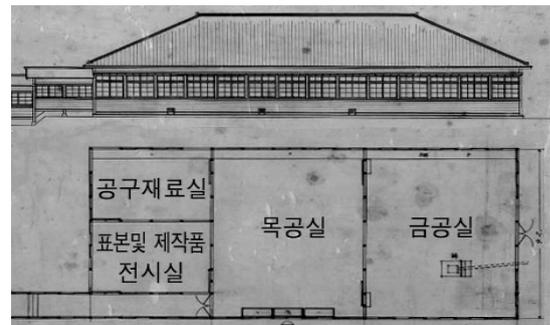


[Fig. 11] annex for cooking practice and etiquette lesson of Kyeonsung Girls' Higher Common School (from [8])

3.3 실업 및 기타 교과 특별교실

전술했던 것처럼 1919년까지 한국인 학교의 과학교과는 이과 단일 과목으로 통합되어 축소된 반면에 실업교육의 성격이 강한 ‘수공(手工)’ 과목이 편성되어 있었다. 이는 한국인을 위한 고등보통학교에 대한 차별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로 1919년 삼일 운동 후 수공 과목은 폐지되었다. 이 때문에 수공 과목 관련 특별교실은 설립년도가 빠른 경성고보(1900년), 평양고보(1909년) 등 두 한국인 학교에서 관련 도면을 찾을 수 있다.

경성고보의 경우 도면상의 명칭은 수공실로, 허술해 보이는 창고 형태의 건물로 계획상의 특이점은 없다. 반면에 평양고보는 Fig. 12에서처럼 금공실, 목공실을 구분 설치했으며 기타 부속실들을 갖는 세분화된 실 구성을 하고 있다. 또 수공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채광을 확보하기 위해 남측면을 연속창으로 계획하는 등 일정 정도 계획상의 배려가 있음이 주목된다.



[Fig. 12] annex for wood and metal work of Pyeongyang Higher Common School (from [8])

기타 교과용 특별교실로 일본인 학교 2개교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리역사실이 계획되었다. 계획상의 특이점은 없지만 일반 교과 중 특별교실 형태로 운영을 고려했던 과목들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4. 결론

이상에서 국가기록원 소장의 일제 강점기 학교 건축 도면을 통해 관립 중등학교 특별교실의 계획 특성을 살펴보고왔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당시 일본의 과학교육 진흥책의 영향으로 과학교과용 특별교실은 필수시설들 중의 하나로 계획되었으며 이화학교실과 박물관교실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2) 이들 교실에는 준비실, 기계실, 표본실 같은 부속실이 설치되며 이론 강의 및 실험시연을 위한 계단교실이 별도로 설치되기도 하였다.
- 3) 과학 교과 특별교실은 설비 및 안전상의 이유로 다른 시설들과 이격하여 계획하는 경향이 강했다.
- 4) 예술교과용 특별교실 중 도화실은 남녀학교 모두 설치 빈도가 높은 편이나 음악실의 경우 여학교에서는 특별한 건축 계획적 고려 하에 만들어진데 비해 남학교에서는 설치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5) 가사교과용 특별교실은 여학교에서는 남학교의 과학교과 특별교실만큼 비중이 있는 시설로 계획되었다.
- 6) 기타 교과용 특별교실로 한국인에 대한 실업교육 위주의 차별적 교육정책을 상징했던 수공실이 설립년도가 빠른 한국인 학교들에서 계획되었으며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일부 일본인 학교에 지리역사교실이 계획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중등학교 건축을 특징짓는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인 특별교실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제 강점기 중등학교 학교건축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교과 특별교실은 필수 시설로 과목별 구분과 다양한 지원시설들을 통해 중요 영역으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가사실이나 음악실 계획정도에서 나타나는 남녀 학교별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특정시기의 관립 중등학교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교실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학교 건축에 특별교실이 도입되었던 초기 양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 [1] Choi, Kwan-Soon, "A Historical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tudent's Heuristic Experiments in Japan", Ph.D. Thesis, Major in Secondary Scienc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5
- [2] Gwangju Jeil High School, "65 Years History of Gwangju Jeil High School", 1986
- [3] Japanese Government General, "Bulletin of Chosun Education", 1928
- [4] Joo, Sang-Hun, "Characters of Jeon-ju Governmental Middle School and Normal School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ith the Architectural Drawing",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vol 18, no4, pp26~31, 2011. 07
- [5] Joo, Sang-Hun, Jeon, Bong-Hee,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Layout Programs through the Process of Construction of Governmental Middle and High Schools of Seoul in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5 no5, pp201~212, 2009. 05
- [6] Joo, Sang-Hun, Jeon, Bong-Hee, "A Study on the Scheme of the Main Building of Governmental Middle Schools from 1911 to 1924 in Korea",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5 no11, pp169~180, 2009. 11
- [7] Kyeongbuk High School, "70 Years History of Kyeongbuk Middle and High School", 1986
- [8] <http://theme.archives.go.kr>

이 정 우(Jeong-Woo Lee)

[정회원]



- 1989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석사)
- 2009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관심분야>
학교건축